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합평 이전 물꼬 트이나

## 광주시-합평군-금타 논의

### 지지부진 이전사업 속 기대감 부지 용도변경 문제 등 발목 “현 상황의 공유 대화 오간 것”

광주시와 합평군, 금호타이어가 최근 광주공장 이전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활로를 찾지 못했던 금호타이어 이전 협의가 다시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상의 합평군수, 정일택 금호타이어 사장을 비롯한 광주시, 합평

군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광주 모처에서 만나 차담회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차담회에서 양 단체장과 정 사장은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이 광주와 합평 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 상호 협의의 속에 방향을 설정해 나가자는 협력 의지와 함께, 현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수립 중인 이전 준비 과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1600만본 이상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역 향토기업이자 국내 타이어 생산거점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지난 1974년에 지어져 노후화 시설과 설비로 공장 가동을 저하 등의 문제를 겪어왔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지난 2021년 공장을 합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이전키로 하고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장 이전 부지 계약금을 납부했지만,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한 현 부지 용도변경에서 발목이 잡히며 돌고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도변경을 문제로 올해 초에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인수 및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까지 사업을 포기하고 컨소시엄을 해체하면서 공장 이전은 더욱 안갯속으로 빠졌다.

지난 2021년 말 미래에셋·현대건설·중흥토건으로 구성된 미래에셋증권 컨소시

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1조4000억원의 부지매각대금을 확정했지만, 본계약 체결이 계속 미뤄져 오면서 결국 지난해 말 본계약 체결이 최종 무산, ‘공장부지 인수·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리고 컨소시엄을 해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도변경의 키를 쥔 광주시와 공장 이전 대상지인 합평군, 금호타이어 사장 등 3자간 회동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공장 이전이 물꼬를 트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측은 이번 회동에서 공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사항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일축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안은 없으며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금호타이어를 주체로 한 상호 협력 속 이전 문제를 논의해 나가자는 정도의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 역시 “이번 회동에서 공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오간 것은 아닐 것”이라며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공장 이전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 롯데백 광주점, 광주천 환경정화 활동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광주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투데 봉사단 10여명은 지난 5일 광주천변 양립교와 서석교 일대에서 쓰레기 및 각종 오물 등을 수거했다. (사진)

이날 봉사는 광주시민들의 소중한 습터인 광주천 환경 정화 및 수질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봉사에 참여한 임연희 사투데 봉사단원은 “환경의 날을 맞아 광주천 정화활동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3월22일에도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광주천 일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박소영 기자

# 50인 미만 中소 40% “중대재해법 준수 불가능”

## 중기중앙회 실태 조사

### 59% “적용시기 유예해야”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7개월가량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두고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58.9%)은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50.4%)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했지만 세 곳 중 하나(34.8%)는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77.8%)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에서는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시행령 제4조제3호)’(16.0%)가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한다고 응답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이 부족해서’(46.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 중소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제6호)’(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제4호)’(14.2%) 순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상습·반복 사망사고에 한해 형사처벌’(43.0%)하는 방향으로 사업주 처벌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가 산재예방 지원예산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6.0%에 그쳤다.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49.5%가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잘 모르다’고 답해 산재예방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도움이 된 산재예방 지원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36.3%)이 꼽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 광주은행 ‘고객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 실시

### 브랜드파워 6년 연속 1위 기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방은행 브랜드파워 6년 연속 1위를 기념해 ‘고객과 상생하는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를 마련,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상품 또는 서비스 △100년 은행으로 발전을 위한 디지털 금융 아이디어 △광주은행 상품·서비스·제도 관련 불편사항 등이다.

참여 대상은 개인 고객이며, 횡수에는 제한이 없다. 참여 방법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뱅킹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불편 및 개선의견이 담긴 고객의 견을 남기면 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광주상생카드 50만원 △우수상(2명 이내) 광주상생카드 30만원 △장려상(50명 이내)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2만원을 증정하며, 참여상(선착순 100명)으로 스타벅스 모바일 상



품권 1만원을 증정한다.

수상자는 오는 7월 중 개별 문자 통지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선진 광주은행 프로세스혁신부장은 “이번 공모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광주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고객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기아 ‘대학생 서포터즈’ 크리에이터 6기 모집

### 주제별 영상 제작 제출 촬영감독 멘토링 지원

기아는 국내 대학생들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아이디어를 예술적 영감으로 구현하는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 기아 크리에이터 6기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기아 크리에이터는 기아와 대학생들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된 대학생 소통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이 기아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무까지 적용해 보며 새로운 미래를 그려 나가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아 크리에이터 6기는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활동할 예정으로 미래 모빌리티와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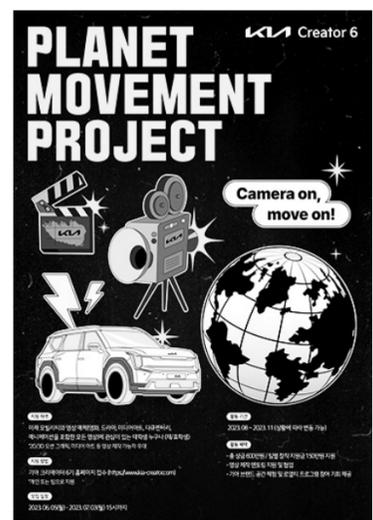
기아 크리에이터 6기 지원신청은 오는 7월3일까지 기아 크리에이터 홈페이지(<http://www.kia-creator.com>)에서

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7월27일 발표한다.

선정된 참가자들은 ‘Sustainable(지속가능성) Mobility’ 또는 ‘Change the Colors’를 의 주제로 1~5분 분량의 영상 제작을 하게 될 예정이며, EV 신차 및 브랜드 공간체험과 함께 운전수 촬영감독을 초빙해 밀착 멘토링과 특강 기회를 제공, 온오프라인 상영회 개최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참여 대학생 전원에게는 팀별 창작 지원금 150만원, 최종대상 수상팀에게는 우수 활동팀 상금인 총 600만원을 지급해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EV 차량 워크숍 및 거점 공간 방문을 통해 기아에 대한 이해도와 브랜드 로열티를 높이는 물론 창작을 위한 영감을 얻어가는 체험 행사에도 참여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2023년 기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모빌리티를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인 ‘지속가능성’의 모습을 대학생



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기아 크리에이터 6기를 운영하게 됐다”며 “기아의 대학생 소통 프로그램인 기아 크리에이터에 많은 대학생들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곽지혜 기자